

# 『韓國時調大事典』補遺(Ⅲ)\*

박 을 수\*\*

<目次>

- I. 序 言
- II. 作品註釋(계속)

## 1. 序 言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韓國時調大事典(上·下)』 <亞細亞文化社, 1992> 출간 이후에 새로 발굴된 시조작품이다. 그후 지금까지 더 발굴된 時調遺產은 251首나 된다. 따라서 필자의 시조사전에 수록된 작품이 모두 5492首였으니까, 이를 합치면 시조의 총 유산은 5743首가 되어, 그 만큼 우리의 작품유산이 윤택해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 유산을 정리하여 시조사전의 《補遺篇》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시조학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나누어 싣는다.

\* 朴乙洙, 『韓國時調大事典』補遺(I)(II) : 時調學論叢 第11·13輯 (한국시조학회, 1995·1997).

\*\* 순천향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6 시조학논총 17

이제 『韓國時調大事典』 이후에 발굴된 시조유산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 중에서 歌集 4 · 5 · 10 · 11 · 18 · 21 · 22 · 24 · 25는 시조사전에서 다룬 것이나, 누락된 작품을 추가한 것임).

番號	時調集名	編著者名	編纂年代	編纂區分	新作品 收錄作品	備 考
1	釋譜詳節 第20卷 末尾	未 詳	세종28~세종31 (1446~1449)	구분 없음	4/4	초간본 『석보상절』 제20권 말미에 작자·연대미상의 시조 4수가 古楷體로 써여 있음. 임형택 소개.
2	先 稿	朴 漑	중종6~선조9 (1511~1586)	구분 없음	2/2	『先稿抄』 '賦詩論策'에 시 조 2수가 수록되어 있음. 金一根 소개.
3	追慕錄	金宇宏 金得可	중종19~선조23 (1524~1590) 명종2~선조25 (1547~1592)	구분 없음	8/8 3/3	필사본으로 宋川書院(경북 봉화)소장. 金宇宏과 그의 이들 金得可의 시조가 수 록되어 있음. 조해숙 소개.
4	眉巖日記	柳希春	선조7(1574)	구분 없음	1/3	『眉巖日記』(慕賢館所藏 筆 寫本). 甲戌 11월 11일條. 宋宰鋪 소개.
5	解菴集	金應鼎	중종22~광해12 (1532~1620)	구분 없음	1/8	田光鉉. 秦東赫 소개.
6	刻溪公遺事	李 淨	(1532~?)	구분 없음	6/6	『慶州李氏家乘』(필사본)에 시조 6수가 전함. 임형택 소개·소장.
7	晚悟遺稿	房元震	선조10~효종1 (1577~1650)	구분 없음	3/3	秦東赫 소개·소장
8	過庭拾遺	李景嚴	선조12~효종3 (1579~1652)	구분 없음	15/15	필사본으로 卷 4에 시조 15 수와 가사 1편이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소장.
9	豚軒公遺事	李弘有	선조21~현종12 (1588~1671)	구분 없음	5/6	『慶州李氏家乘』(필사본)에 시조 6수가 전하나 끝수는 초장만 전함. 임형택 소개· 소장.

『韓國時調大事典』補遺(III) 7

10	雜卉園集	李重慶	선조32~현종19 (1599~1678)	구분 없음	1/21	<梧臺漁父歌> 20수 외 에도 <藏拙窓歌> 1수가 더 수록되어 있음. 啓明 大도서관 소장. 張仁鎮 소개.
11	赴北日記	朴就文	광해군9~숙종16 (1617~1690)	구분 없음	1/2	朴繼叔의 『赴北日記』에 합책된 속에 ‘赴防日記’ 2수가 수록되어 있음. 李 樹鳳 발굴·소개.
12	玉鏡軒遺稿	張復謙	광해군9~숙종29 (1617~1703)	구분 없음	10/10	全4卷 중 卷3 <歌詞>條 에 ‘孤山別曲’ 10수가 수 록되어 있음. 全州大소 장·金壹煥 소개.
13	景寒亭詩歌	郭始徵	인조22~숙종39 (1644~1713)	구분 없음	24/24	秦東赫 소개·소장.
14	後溪詩集	趙裕壽	현종4~영조17 (1663~1741)	구분 없음	3/3	후단 <小詞>條에 시조 3수가 수록되어 있음. 秦 東赫 소개·소장.
15	漫 錄	李 森	숙종30~영조11 (1677~1735)	구분 없음	2/2	‘反武歌’(가사)와 ‘短歌’(시조) 2수가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소장.
16	頤齋亂藁	黃胤錫	영조5~정조5 (1729~1781)	구분 없음	1/	『이재란고』 卷8, 706면에 작자 미상의 ‘淸冷浦歌’ 를 한역하면서 시조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음.
17	甲棘漫詠	尹陽來	현종14~영조27 (1673~1751)	구분 없음	19/19	권말의 <歌曲>條에 시 조 19수가 수록되어 있 음. 서울대 규장각 소장. 朴乙洙 소개.
18	勿欺齋集	姜膺煥	영조11~정조19 (1735~1795)	구분 없음	1/2	필사본 『勿欺齋集』에만 시조가 수록되어 있음. 金 榮福 소장. 秦東赫 소개.
19	觀城雜錄	金履翼	영조19~순조30 (1743~1830)	구분 없음	10/10	필사본 漢籍인데 ‘잡지’ 중에 <歌曲>이라하여 시조 10수가 수록되어 있음.

8 시조학논총 17

20	東遊錄 (壯遊錄)	友 松	영조40~(?) (1764~ ? )	구분 없음	6/6	기행록의 원문과 상하여백에 시조 6수가 기록되어 있음. 서울대 규장각 소장 · 金南基 소개.
21	城西遺稿	申甲俊	영조47~현종11 (1771~1850)	구분 없음	1/10	秦東赫 소개 · 소장.
22	解我愁	未 詳	영조27(?) (1761(?))	구분 없음	4/470	秦東赫 소개 · 소장.
23	無名時調集 가본	未 詳	정조24~철종1 (1800~1850)	내 용	12/78	袖珍本으로 秦東赫 소개 · 소장.
24	三竹詞流	趙 槐	현종13(1847)	구분 없음	8/92	『三竹詞流異本』과 『三竹詞流』 두 가집의 작품을 대조한 결과 8수는 새로운 자료임. 『風雅(大)』에서 『絕代名妓瓊玉』에게 주기 위해 139수를 뽑아 옆은 시조집임. 秦東赫 소개 · 소장.
25	別風雅	李世輔	고종2(1865)	곡 조	1/139	표지가 해손된 것을 羅孫이 불인 것임. 檀國大 율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소장. 吳鍾珏 소개.
26	(羅孫文庫本) 歌 詞	未 詳	고종33(1896)	구분 없음	28/203	開化時調 1首(55번)가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 · 소장.
27	金聲玉振	未 詳	순종4~? (1910~1920?)	구분 없음	20/179	수록작품은 53수이나(14·18)이 중복됨. 檀國大 율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소장. 洪允杓 소개.
28	(羅孫文庫本) 時調集	未 詳	조선조 말	구분 없음	12/52	袖珍本임. 수록작품은 142수이나 5수가 중복됨. 秦東赫 소개 · 소장.
29	芳草綠	未 詳	未 詳	구분 없음	21/137	필사본으로 시조 52수가 수록되어 있음. 檀國大 율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소장. 吳鍾珏 소개.
30	(羅孫文庫本) 靈山歌	未 詳	未 詳	구분 없음	14/52	필사본으로 표제를 알 수 없으나, 모두 70여 수가 수록된 것으로 추정됨. 秦東赫 소개 · 吳鍾珏 소개.
31	(清濃本) 歌 曲	未 詳	未 詳	구분 없음	2/7	

## II. 作品 註釋

5584

가식울 에운 고더 고향 멀기 잘흐앗데  
 만일 갓감던들 성각이 더흘너니  
 출하리 브라도 못보니 니줄 날이 이세라.

〔作家〕 尹 陽 來

(字 季亨, 號 晦窩)

〔出典〕 甲棘漫詠·4

5585

갑산 편훈 쇼식 내라서 던흐야셔  
 삼천니 먼 길흘 순식의 가건마는  
 이리로 오는 불 업스니 셔울 고별 모르옵너.

〔作家〕 尹 陽 來

(字 季亨, 號 晦窩)

〔出典〕 甲棘漫詠·2

5584 [註釋] 가식울=가시나무 울타리. 「가식」. 〔漢清 221d〕 「가식(刺)」. 〔五物 三 38〕 「가식 덤불 속에」. 「울흘」. 〔類合 上 24〕 「울 리(離)」. 〔杜初 七 30〕 「울흔 솔와 菊花를 帶흐앗도다」/에운=두른. 에워 쌓고 있는. 기본형은 「에우다」임. 〔類合 下 26·54〕 「에울위(圍). 에울요(遼)」. 〔譯補 15〕 「에우다(圍着)」/고더=곳에. 「곧+익」의 구조로. 「익」는 처소격 조사임. 〔龍歌: 16〕 「英主△ 알팎 내내 붓그리리」. 〔月干: 4〕 「남지 빼여 性命을 득초시니」. 〔類合 上 24〕 〔石千: 31〕 「곧 쳐(處)」. 〔小諺 二 62〕 「돕흔 곧익 가 절흐고」/고향=자신이 태어난 지방. 故山. 〔史記: 項羽紀〕 「富貴不歸故鄉 如被縕夜行」. 〔朴重下 11〕 「고향의 도라가」/멀기=먼 것

이. 기본형 「멀다」의 부사형태임. 〔訓蒙下 34〕 「멀 원(遠)」. 〔月釋 十 23〕 「길Hon 멀오 도즈근 하고」/잘흐앗데=잘하였네. 잘된 일이구나. 「잘하다」→5723註釋/만일=만약. 만에 하나라도. 〔類合下 49〕 「만일여(如)」. 〔小諺 凡 3〕 「만일 다 本音을 뜻면」/갓감던들=가깝다면. 가깝더라면. 기본형은 「갓갑다」임. 〔訓蒙下 34〕 「갓가을근(近)」. 〔杜初 七 4〕 「서로 갓갑느닌(相近)」/성각이=생각이. 「싱각하다」→5569 註釋/더흘너니=더할 것이니. 「더흐다」→5683 註釋/출하리=차라리. 〔續小八 4〕 「출하리 바티 드월 쿠니언녕」/브라도=바라보지도. 쳐다볼 수도/니줄=잊을. 「낫다」→5658 註釋/이세라=있겠는가. 있으랴

5586

갑프리하 갑프리라 성쥬홍은 갑프리라  
 이 몸이 죽을진들 어이흐야 다 갑프리  
 이 싱의 못 갑픈 은혜는 후싱의나 갑프리라.

**作家** 李 森  
 (號 白日軒)

**出典** 漫 錄

\* 漢譯歌：報了報了 聖主鴻恩報了 此身離死 何以盡報了  
 兹生未報恩 後生當報了。

5587

江山의 눈이 낙고 世路의 놋치 서너  
 어더 뉘 門의 이 허리 굽널손고  
 一尊酒 三尺琴 가지고 百年 消日호리라.

**作家** 張 復 謙  
 (字 益哉, 號 玉鏡軒)  
**出典** 玉鏡軒遺稿

\* 題 目：孤山別曲(10-3)

「잇+예라」의 주로. 「～예라」→5641  
 註釋. 「잇다」→5673 註釋.

5585 **註釋** 갑산=甲山. 함북의 갑산. 蓋馬臺地의 중심부로 三水와 합께 교통이 불편하여 궁벽진 지역임. [新增卷四十九 甲山] 「東至建州衛康良北界百五里 南至端川郡界 九十里 至北青府界 百三十二里 西至三水郡界 天十五里 北至惠山鎮 百十五里 距 東都 一天三百八十三里」. [俗談] 「삼수 갑산을 가서 산田을 일궈 먹더라도」/ 쇼식=소식을. →5731 註釋/면 흐야서=전하여. 기본 형은 「면 흐다」임. [類合 下 25] 「면 흘면 (傳)」. [小諺 二 19] 「물며느리게 면 흐단 말이라」/면=멀고 면. 「멀다」→5584 註釋/길흘=길을. 「길 흐」→5696 註釋/순식의=瞬息. 눈 깜짝할 사이에/

불=봉화불. [漢清 316 C] 「봉화(烽火)」/서울=서울의. 「서울 흥·서울·서울」 등으로 쓰였음. [樂章: 西京別曲]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杜初 十四 45] 「가는 빙는 서울로 도라가듯다」/괴별=소식을. [龍歌: 35] 「서울 괴벼를 알씨」. [月千: 23] 「괴별을 솔바늘」/모르암너=모르네. 모르겠네. 「모르다」→5649 註釋

5586 **註釋** 갑프리라=갚으리라. 보답하리라. 기본형은 「갚다」임. [類合 上 10] 「가풀보(報)」. [三綱 孝 9] 「빈갑게 호시니」/성쥬홍은=聖主鴻恩. 성군의 넓고 큰 은혜. [戰國: 秦策] 「求得而反靜 聖主之制也 功大而息民 用兵之道也」. [列女傳: 辨通傳] 「一言發聖主之意」. [楊惲: 報孫會宗書] 「伏惟聖主之

## 5588

구름의 의지호야 望高臺 안자시니  
 鴻蒙乙 뿐여나서 仙境이 여기로다  
 언제나 鶴背冷風의 白日昇天 허리요.

作家 友 松

出典 東遊錄

\* 題 目 : 登望高臺

漢譯歌 : 路仄垂猿臂 磬拆引雲索 坐處惟半空 去天只一握  
 喜超鴻濛界 真得象外遊 悅如御鶴背 渾忘登鰲頭  
 乾坤如一塊 滄溟卽小盃 一蹴可昇天 何煩鳳鞭催.

恩 不可勝量」/「鴻恩」。〔吳越春秋〕「范蠡 曰 蒙大王鴻恩」/죽을진들=죽는다 하더라도。「죽+으+ㄹ진들」의 구조。「~ㄹ진들」은 「~ㄹ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時調 2434, 成三問〕「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하는 것가」/다=모두。「다」→5702 註釋。

〔参考〕右感泣天恩由中而發 岳徒詠言而已哉。歲庚戌仲夏。

5587 **註釋** 눈이 닉고=눈에 익고, 낯 설지 않고。「눈」。〔類合 上 20〕「눈 안(眼)」。〔翻小 八 25〕「눈을 불겨(明目)」。「늬다」。〔訓蒙 下 12〕「類合 上 10」。「니글숙(熟)」。〔小諺 四 54〕「棣棣 : 만코 낙숙은 양이라」/놋치 서너=낯이 서네. 익숙하지 않네。「矣」。〔類合 上 25〕「놋 안(顏)」。〔月千 : 62〕「놋출 거우승본들 모슴잇든」。「설다」。〔同文 上 58〕「밥 서다(飯半生)」。〔永嘉 上 18〕「설며 니고물(生熟)」/어더=어디。「어ණ셔」→5656 註釋/뉘=누구. →5593 註釋/門의=門下에서/허리=허리

를。〔訓蒙 上 27〕〔類合 上 21〕「허리요 (腰)」。〔月釋 一 29〕「須彌山 허리예 히 드리 감포느니」/굽닐손고=굽혔다 일어 났다 할 것인가. 기본형은 「굽다」「닐다」의 복합어로, 「굽+니+ㄹ손고」의 구조 임。「~ㄹ손고」→5736 註釋。〔訓蒙 下 29〕「구불왕(枉)」。〔法華二 167〕「귀 먹고 등 구벼」。〔訓蒙 下 27〕「類合 下 5」。「닐 쥐(起)」。〔杜初 七 33〕「보르마 니니(風起)」。〔時調 1706〕「口腹을 못 메워 쳐다지 굽니는다」/一樽酒=一樽酒. 한 통의 술。〔杜甫 : 春日憶李白詩〕「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三尺琴=거문고. 三尺玄琴/消日호리라=시간을 보내리라. 消遣。

5588 **註釋** 구름의=구름에. 「구름」→5605 註釋/의지호야=기대어. 기본 형은 「의지호다」。〔類合 下 44〕「의지호의(依)」。〔漢清 229 b〕「놈의게 의지호여」/안자시니=앉았으니。「앉+앗+으니」의 구조임。「앉다」→5656 註釋/鴻蒙乙=鴻濛을. 허늘과 땅이 아직 갈라지지

5589

國 安酒 김픈 盞은 座上의 나소오고  
 노리 춤 당고 봄픈 쥐므니 맛겨 두고  
 아히야 조히 봇 먹 드려라 聯句 흔 작  
 혀암새.

〔作家〕張復謙

〔字〕益哉，號玉鏡軒

〔出典〕玉鏡軒遺稿

\* 题 目：孤山別曲(10-10)

않은 모양을. 「乙」은 「을」의 이두식 표기임. 하늘과 땅의 元氣. [莊子：在宥篇] 「鴻濛方將拊脾雀躍而遊」. [淮南子] 「開鴻濛之先」/ 뛰어나서 = 뛰어나서. 기본형은 「뛰어나다·뛰여나다」가 같이 쓰였음. [類合 下 5] 「뛰여날豆(超)」. [楞嚴八 139] 「化와 無化와 境을 뛰여나는니」 /仙境=신선들이 산다는 곳. 仙界. [宋之間：奉陪武駙馬宴唐卿山亭序] 「苔閣茅軒勞鬱入神仙之境」/여기로로다=여기로구나. 「여기+도다」의 구조. 「~도다」 → 5677 註釋 「여기」→ 5742 註釋 「鶴背冷風=학처럼 차가운 바람을 타고 날다」/白日昇天=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감. 上天.

5589 〔註釋〕 국=술국. [漢書 374a] 「國(羹)」. [譯補 : 30] 「국 먹다(哈湯)」/安酒=안주. 「안쥬」. [訓蒙 中 20] 「안木餚(餚)」. [魏小十 32] 「안쥬를 포육과 젓과」/김픈=깊은. 기본형은 「깊다」임. [類合 下 37] 「기풀슈(蓬)」. [龍歌 : 2] 「불휘 기픈 남근(根深之木)」/ 盞은=술잔은. 「잔」→ 5739 註釋 / 座上의=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께. 「座上客恆清」. 집안에 항상 친객이 가득함을 이

름. [後漢書 : 孔融傳] 「融爲北海相 免官歲餘復拜大中大夫 性好士 及退間職 賓客日盈其門 常歎曰 座上客恆滿 尊中酒不空 吾無憂矣」/나소오고=드리고. 바치고. 기본형은 「나소다」임. [月釋 11] 「내 이 고줄 나소리니」. [朴初 上 48] 「잔 자바 나소마」/노리=놀애. → 5677 註釋 「춤」/춤. [訓蒙 下 15] [類合 下 6] 「춤 무(舞)」. [釋譜 六 10] 「놀애 춤 마름파」/당고=장구. 「당구」. [閑中 p.372] 「당구로 소요한며」/봄픈=복은 「봄」. [月千 : 156] 「부풀 데 널오니」. [釋譜 六 28] 「봄 터 사라물 모도오더」. 「봄→복」은 異化作用임. 이화작용은 같거나 성격이 닮은 두 음이 이웃하여 나타날 때, 그 가운데 한 음이 다른 음으로 변하거나 탈락하는 현상을 이름. 異化↔同化/저므니=젊은 이에게. [月釋 146] 「늘그니며 쥐므니며 貴하니」. [杜初廿五 29] 「卿相이 쥐므니 하니(卿相多少年)」. 「첨다」[石千 : 35] [倭語 上 19] 「저믈쇼(少)」. [六祖序 7] 「저며 신 제 일즉 넷 本을 보고」/맛겨=맡겨. 기본형은 「맛디다·맛기다」가 같이 쓰였음. [法華 四 154] 「太子의 政事 맛디

5590

꿈이 헛 거신 줄 벤드시 알건마는  
일가를 만나보면 그려도 든든한데  
서름의 밤밤 업스니 꿈인들 즐줄너냐.

〔作家〕 尹 陽 來

(字 季亨, 號 晦窩)

〔出典〕 甲棘漫詠·3

5591

그물 멘 아히들아 고기잡기 희디 마라

〔作家〕 尹 陽 來

고(委政太子). [杜重 六 48] 「조 分外  
언마론 理에 맛기니」/두고=두고서. 기  
본형은 「두다」임. [類合 下 13] 「둘 티  
(置)」. [樂章: 履霜曲] 「내 님 두옵고  
년뫼를 거로리」/조희=종이. 「조희·조  
희·조희·종희」 등이 같이 쓰였음. [訓  
蒙 上 34] [類合 上 25] 「조희지(紙)」.  
[杜初 七 4] 「조희를 그려 장과포늘 맹  
굴어늘」[柳物 四 木] 「紙 조희」/붓=붓  
「붓·붓」이 같이 쓰였음. [五倫 二 5]  
「부술 드려」. [訓蒙 上 34] [類合 上  
25] 「붓 펠(筆)」. [解例: 合字] 「붓 為  
筆」/먹=먹을. [訓蒙 上 34] 「먹 묵(墨)」.  
[楞嚴 一 5] 「世界에 짜흘 adratic 먹 맹  
라」/드려라=들이거라. 내어라. 기본형  
은 「드리다」로 「드리+거라」의 구조임.  
명령형종결어미 「~거라」가 「~」 모음  
아래에서 「ㄱ」 탈락, 그리고 「~」 모음순행동  
화가 일어난 형태임. 「~거라」 → 5632  
註釋. [訓蒙 下 21] [類合 下 14] 「드릴  
납(納)」. [楞嚴 五 7] 「이 中에 는와야  
다른 物을 드리고」/聯句=漢詩의 對句.  
[夢溪筆談] 「聯句 虞廷賡歌 武帝栢梁 已  
肇其端矣」. [文體明辯] 「接聯句 詩起自

栢 梁人各一句集以成篇 其後宋孝武華林  
曲水 梁武帝清暑殿 唐中宗內殿諸詩 皆  
與漢同 唯魏懸瓠 方文 竹堂 謙饗 則人各  
二句 稍變前體 自茲以還體遂不一 有人  
各四句者 如陶靖節集所載是也 有人各一  
聯者 如杜甫與李之芳及其甥宇文或所作  
是也 有先出一句 次者 對之 就出一句 前  
人復對之者 如韓昌黎集所載城南詩 是也  
然必其人意氣相投 筆力相稱 然後能爲之  
否則徇續尾 貌難乎免於後世之議矣」/호  
작=한 작. 「짝」. [訓蒙 下 33] 「짝 더  
(對)」. [牧修: 85] 「술윗 두 짹 걸흐야」  
/호압새=하세. 하자꾸나. 기본형은 「호  
다」로 「호 + 읍 + 새」의 구조임. 「~읍」은  
어간에 붙어 공손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임. [家諺 一 9] 「堂의 位牌를 두옵  
고」. [普勸: 37] 「스럽 호읍느니」. 「~  
세」는 손아래 동등한 사람에게 권유하는  
뜻을 나타내는 청유형종결어미임. →  
5608 註釋. 「호다」. [類合 上 24] 「호  
위(爲)」. [石千: 9] 「호고겨흘욕(欲)」.

5590 註釋 꿈이=꿈이. →5639 註  
釋/헛 거신줄=헛된 것인 줄을/벤드시

봄어름 茸拂리더 물 어더 즐기는터

(字 季亨, 號 晦窩)

엇디타 나 먹기 뜻타하고 저 설운 일 헌렸는다.

**出典** 甲棘漫詠·13

### 5592

너르서 뉘로르흐여 鶴祿을 모암에 둘고

**[作家]** 李淨

죠고만 씩집을 시너 우에 이룬 바

(字 太灝, 號 楓溪)

어제밤 손소 다든 문을 늦도록 닷치엿소.

**出典** 楓溪遺事

\* 題 目 : 楓溪六歌(第二節)

=확실히. 틀림없이. 「번드기·번드시」로 쓰였음. [月釋 十 12] 「顯은 번드기 나타날씨라」. [楞嚴 三 86] 「번드시 아디 몬 旱나다」/알건마난=알지만은. 「알다」. →5610 註釋/일가=一家. 한 집 안. [大學] 「仁一國一家興仁一家讓一國興讓」. [俗談] 「일가 못된 것이 행렬만 높다」/그려도=그래도. 오히려. [類合下 27] 「그려도유(猶)」. [救簡 六 37] 「그려도 아니 나거든」/든든한데=든든하다. 미덥다. 기본형은 「든든하다」임. [癸丑 P. 179] 「더욱 든든한데」/서름의 =설움(근심) 때문에. 「시름」. [楞嚴 九 8] 「시르를 여회오(離憂)」. [杜初 七 4] 「正히 시름한노니(正愁)」/조줄너느냐=잦겠느냐. (침인들) 자주 꾸겠느냐. 「조다」→ 5673 註釋.

**5591** **[註釋]** 그를=그물을. →5640 註釋 / 멘=(어깨에)멘. 기본형은 「메다」임. [訓蒙 下 23] 「멜 담(擔). [內初 三 41] 「술위 메는 쇼률」/고기잡이=고기를 잡는 일. 「고기」→5764 註釋. 「잡다」→5664 註釋/마라=말아라. 「말다」

→5720 註釋/봄어름=이른 봄날의 어름/茸拂리더=이제 막 녹기시작하여. 「茸+拂리지+어」의 구조임. 「茸」은 접두사. [松江 二 13] 「茸천이 쟈를가 마는」. [時調 128] 「갓스를 선 머슴 씩에」. 기본형은 「프리디다」임. [翻小八 34] 「프리디게 호미」. [翻小八 37] 「어름 프리둠 茸하며」/어더=얻어. (물을)만나서. 기본형 「얼다」의 부사형임. [月釋 二 71] 「시혹 몰 얻기 수으며」. [金三 二 26] 「그지업순 福德 어두문 證이라 이에 알리도다」/즐기는터=즐기고 있는데. 「즐기다」→5649 註釋/엇디타=어찌하여. 「엇디」. [石千: 7·25] 「엇디지(豈)·엇디하(何)」. [觀音: 9] 「엇디樂디 아니한노」/먹기=먹기에. 「먹다」의 명사형태임. 「먹다」→5664 註釋/도타하고=좋다고. 「돕다」→5639 註釋/져=저가. →5742 註釋/설운=설운. 슬픈. 기본형은 「쉽다」임. [杜初 八 59] 「설워 올오셔 희다가(慟哭)」. [樂章: 가시리] 「설운 님 보내옵노니 가시는 뜻 도셔오 쇼서」/헌렸는다=하려고 하느냐. 「헌+

## 5593

너 말도 놈이 마소 놈의 말도 너 아닌너  
 孤山 不孤亭의 조하 늘는 몸이로쇠  
 어되서 妄僕의 손이 겉다 세다 혼나니.

\* 孤山別曲(10-4)

作家 張復謙

(字 益哉，號 玉鏡軒)

出典 玉鏡軒遺稿

려+흐는다」의 구조. 「~려」→5630 註釋. 「흐다」→5589 註釋.

**5592** **[註釋]** 너르셔=내가. 「내」→5720 註釋/뉘로른 흐여=누구라고. 「뉘」→5669 註釋/爵祿=관작과 봉록/모암에=마음에. 「모 암」→5649 註釋/들고=두겠는가. 「두다」→5589 註釋/죠고만=작은. 「죠고만·죠고맛·죠고마」등 다양하게 쓰였음. [老乞 下 1] 「죠고만 널문이(小板門)」. [釋譜 六 44] 「죠고맛 거슬 주어시든」/씩집을=草屋을. 「草堂」→5677 註釋/시너=시냇가에. 「시내」→5667 註釋/우에=위에. 「우흐」→5639 註釋/이룬 바=지은 바. 세운 바. 「일우다」→5710 註釋. 「바·빠」. [訓蒙 中 8] 「石千: 13」 「바 소(所)」. [杜初 七 4] 「얻고져 흐는 바는(所須)」. [孟諺 十三 12] 「아니흘 빠를 흐디 말며」/손쇼=손수·자신이. 「손조·손죠」가 같이 쓰였음. [二倫 重 1] 「손조 주그니라」. [癸丑 P.106] 「손죠 죽고져 흐노라」/다든=닫은. 기본형은 「닫다」임. [訓蒙 上 6] 「다둘관(關)」. [杜初 八 61] 「다돈 門人 안해(閉門中)」/문을=문을. [訓蒙 中 7] [類合 上 22] 「문문(門)」. [物譜: 第宅] 「문 두 짹 스이예션 등방(閨)」/늦도록=늦게까지. 「늦다」

→5711 註釋/닫치엿소=닫아두었오. 「닫+히+엇\_소」의 구조임. 「~히」는 피동선어말어미. [三譯 六 4] 「사름의게 잡힘이다」. [月釋 九 25] 「나랏법에 자피여 미여」. 「~소」는 「~하게」할 자리에 쓰여 대답이나 묻는 말의 종결어미. [時調 4168, 金光燈] 「오려 點心 날 시기소」. [新語 一 2] 「아름답스의 여괴오르옵소」.

**5593** **[註釋]** 너 말도=나에게 관한 말도. 「말」. [釋譜 六 8] 「내 마를 다 드를 때」. [月千: 2] 「世尊へ 말 술보리니」/놈의 말도=다른 사람에 관한 말도. 「놈」→5714 註釋/孤山 不孤亭=고산에 있는 정자. 전북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있음. [玉鏡軒遺稿; 行狀] 「門外有一小山 號孤山 結構於其上 名之曰不孤亭 蓋取東坡道人有道 山不孤之義也」. [孤山; 不孤亭序] 「山以孤名 亭以不孤名 山言容也 亭言德也 來不麓 起不漸 驚頭一點 平地上斗起 則呼茲山也 其亦孤也」/조하=좋아. 「좋다」→5639 註釋/늘는=는. 「늙다」→5649 註釋/몸이로쇠=몸이로다. 「몸+이+도쇠」의 구조임. 「몸」. [月千: 4] 「몸액 떨 뵈화 그르세 담아」. [月釋 八 80] 「몸을 푸라지이다」. 「~도쇠」는 “ ” 모음 아래서는 「~로다」

## 5594

뉘라셔 위리 속을 좁으리라 니르던고  
 혼 몸 용납흔 후 나쁜 곳은 굽싸힐쇠  
 사름이 군싸흘 못 뜨ти면 턴해라도 좁으리라.

[作家] 尹 陽來  
 [字] 季亨, 號 晦窩]  
 [出典] 甲棘漫詠·17

## 5595

늘고 병 든 몸을 世上이 ernal sickness  
 죠고만 草堂을 시너 우희 일워두고  
 目前에 보이는 松竹아 너 붓인가 흐노르.

[作家] 李 弘有  
 [字] 順吉, 號 山民)  
 [出典] 遷軒公遺事

\* 題 目 : 山民六歌(第四節)

로, 「~리로다」의 뜻을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어미임.〔蘆溪 : 獨樂堂〕「吾來方 文物이 漢唐宋애 비기로쇠」.〔楞嚴 一 66〕 「반드기 다 物을 보리로다」/어디서=어 디서. 「어디서」→5656 註釋/妄僞의 손 이=망명의 것이. 「망녕되다·망녕도이 다」 등이 같이 쓰였음.〔小諺 六 42〕 「敢히 거죽되며 망녕되어 몯호영이다」.〔格江 二 2〕 「어디서 망녕의 거시」. 「손」 은 「손」으로 「것은」의 뜻을 나타내는 불 완전명사임.〔蘆溪 : 隅巷詞〕 「다토 리 업슬 손 다문인가 너기로다」.〔孤山 六 下 別 4〕 「아마도 變티 아니흘 손 바회 쁜인가 흐노라」/검다 세다=검다하기도 하고 희다 하기도 한다. 「검다」.〔訓蒙 中 29〕 〔類合 上 5〕 「거를흑(黑)」.〔杜重 一 25〕 「검도록 잇디 몯호며」. 「히다」→ 5786 註釋.

5594 [註釋] 뉘라셔=누가(감히). 「뉘

+라셔」의 구조로 「~라셔」는 주격조사 임. 「뉘」→5593 註釋.〔時調 961, 朴孝寬〕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흉타 흐듯던 고」.〔時調 964, 李仲集〕 「뉘라셔 날 늑다 흐는고」/위리=우리. 「우리립(笠)」 「[漢清306a] 늘스즈싱 넛는 우리(串籠)」 /속을=속을. 안을.〔月釋 一 13〕 「骨髓는 쪘 소개 잇는 기르마라」.〔杜初 上 26〕 「속 오스란(裏衣)」/좁으리라=좁다고. 좁을 것이라고. 기본형은 「좁다」로 「좁+으+리라」의 구조임. 「~리라」→ 5645 註釋.〔類合 下 4〕 「조블루(陋)」. 〔月釋 二 28〕 「좁던 東山이 어위며」/니르던고=이르던가. 말했던가. 「니르+더+ㄴ고」의 구조임. 「~더」→5717 註釋. 「~ㄴ고」→5669 註釋. 「니르다」→ 5661 註釋/용납흔 후=용납한 뒤에. 허락한 후에. 기본형은 「용납한다」임.〔同文 上 23〕 「용납한다(容他)」. 〔漢清

5596

德月山 나린 줄기 齊安堂 된 연후에  
 좌월파 우태허에 적벽수구 되엿세라  
 至今에 風流太守 與民同樂하니 四時春光.

出典 知音·296

5597

도라보니 萬二千峯 구비보니 瑤海三千  
 沙鷗는 도라오고 夕陽은 빗것는더  
 엉더라도 날 드릴 垒鶴은 이대도록 더더는고.

作家 友松

出典 東遊錄·4

\*題目：海山亭

漢譯歌：蓬山落照倚欄頭 七十翁能辦壯遊 千里  
 行裝蒼海闊 百年身世白鷗浮 壞虫塵界  
 多乾沒 鴻鵠雲天置四儔 日月任他詩裏  
 過 風烟簸嘸錦囊收.

167 C) 「용납지」. 못하다(容不下)/나  
 른=남은. 「남다」→5688 註釋/군짜힐  
 쇠=군더더기 땅이로구나. 「군+짜+  
 이+ㄹ쇠」의 구조임. 「군」은 접두사로 「쓸  
 데 없는」의 뜻임. [新語 四 17] 「군말  
 업시」. [松江 一 15] 「군쁘디 전혀 업서」.  
 「짜+」→5598 註釋. 「~ㄹ쇠」는 「~ㄹ  
 세 · ~로구나」의 뜻을 가진 감탄형종결  
 어미임. [新語 一 28] 「공쥬 즓가 역질  
 귀우을쇠」. [時調 3437, 李鼎輔] 「一身  
 이 사자하니 물것 계워 못 살니로다 / 써  
 티면=깨달으면. 깨우치면. 「써+티+면」  
 의 구조임. 「써다」→5594 註釋 「~  
 티」는 강세선어말어미임. [月釋 二 6]  
 「어드리 내티료」. [釋譜 九 6] 「모딘 이

를 그치틸씨오」/현해라도=天下) 라도.  
 천하라 하더라도. 「天下」의 「」는 한  
 자어 다음의 표기 형태임. [書經 : 大禹  
 謨篇] 「奄有四海 爲天下」君. [論語 :  
 泰伯篇]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

5595 註釋 늘고=늙고. 「늙다」→  
 5649 註釋/병이 든=병이 들어 있는.  
 「병」→5731 註釋. 「들다」→5716 註釋/  
 ㅂ렷실식=버렸기 때문에. 기본형은 「ㅂ  
 리다」로 「ㅂ리+엇+ㄹ식」의 구조임.  
 [釋譜 十三 39] 「내 것 ㅂ려 恩惠주미」.  
 [釋譜 六 12] 「世間 ㅂ리고 罷解 드러」.  
 「~ㄹ식」는 「~ㄹ쇠」와 함께 「~이므로」  
 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임. [楞嚴 一  
 72] 「物이 體의 아르미 아닐식」. [龍

## 5598

도횡도 업슨 짜희 흐물며 梅花리나  
 히마다 것근 가지 서신의 부텨오니  
 어즈버 고원춘식을 친히 본 듯흐여라.

作家 尹 陽 來

(字 季亨, 號 嗨窩)

出典 甲棘漫詠·6

## 5599

두고 쏘 두고 쥐 憎心 끼지 읍다  
 느는 너 집에 너 세곤을 술펴보니  
 우섭다 낙씨더 훈느 외예 것칠 거시 전혀  
 읍세르.

作家 李 淨

(字 太瀕, 號 楓溪)

出典 刻溪遺事

\* 题 目 : 楓溪六歌(第4節)

歌: 2) 「불휘 기픈 남근 떠르매 아니 월  
 씨」/죠고만=작은, 「죠고맛」→5592 註  
 釋/草堂을=草屋을. →5677 註釋/우히  
 =위에. 「우+이」의 구조임. 「우+」→  
 5639 註釋. 「~에」는 처소격조사임. [龍  
 歌: 16] 「英主△ 일피 내내 붓그리리」.  
 [月千: 4] 「남지 빼여 性命을 모으시니」  
 /일위두고=짓고. 「일우다」→5710 註  
 釋/目前에=눈 앞에. [列子: 楊朱篇]  
 「目前之事 或存或廢 千不識一」. [後漢  
 書: 左慈傳] 「操曰 一魚不周座席 可更得  
 乎 慈更餌鈎沈之 須臾得引出 皆長三尺  
 餘 生鮮可愛 操使目前鑰之 周渢會者」.  
 [三國吳志: 陸瑁傳] 「爲赴目前之急 除  
 心腹之患」/松竹아=소나무와 대나무야.  
 [南史: 張沖傳] 「忠貫昊天 操逾松竹」/  
 붓인가=변인가. 「붓」은 「별」의 잘못임.  
 →5669 註釋.

5596 註釋 德月山=황해도 黃州에  
 있는 산명/齊安堂=堂號. 소재미상/된  
 연후에=된 뒤에/좌월파 우태허=원쪽  
 에는 月波樓 오른쪽에는 太虛樓. 모두가  
 黃州郡에 있는 누각임./되엿세라=되었  
 구나. 「되+엇+예라」의 구조. 「되다」→  
 5724 註釋. 「~엇」은 과거시제선어말이  
 미. [救方 上 3] 「痰이 마쳤거든」. [杜  
 初上 68] 「므로 잡겼느니」. 「~예라」→  
 5641 註釋/風流 太守=풍류를 아는 태  
 수가. 「太守」는 地方官을 이름/與民  
 同樂=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누림. 「與民偕樂」.

5597 註釋 萬二千峯=금강산의 일  
 만 이천의 봉우리/구버보니=굽어보니.  
 내려다보니. 기본형은 「구버보다」임.  
 [類合 下 32]. 「구버불감(瞰)」. 「굽다」  
 →5587 註釋/瑤海三千=옥같이 푸른

5600

두렷호 불근 돌이 텐디의 그득한야  
 밤이 낮이 되야 어두운 곳 업설했는데  
 어더셔 써가는 구름은 그리오려 흐느니.

作家 尹陽來

〔字 季亨，號晦窓〕

出典 甲棘漫詠·11

바다는 삼천리/沙鷗는=모랫벌의 갈매  
 기는/빗겼는터=橫斜의. 비스듬이 비치  
 는데 「빗기+엇+는터」의 구조임. 「빗  
 기다」→5735 註釋/엇더타=어찌하여.  
 「엇디타」→5727 註釋/날 드릴=나를  
 데리러 오는. 기본형 「드리다」는 「더불  
 다·거느리다」의 뜻임. [類合下 8] [石  
 千 : 6] 「드릴솔(率)」. [楞嚴二 8] 「나  
 를 드려 耆婆天을 뵈수을 제」/笙鶴은=  
 학을 타고 笙簧을 부는 신선. 笙鶴仙人.  
 [陳孚 : 留候廟詩] 「我恐至人或不死 尚  
 有笙鶴擁玉節」/이대도록=이토록. 이  
 처럼. [三譯二 21] 「엇지 이대도록 더  
 겹흐느니」. [時調 4593, 金光煜] 「아모  
 리 믿인 새 노하다 이대도록 쟈원흐랴」/  
 더더는고=더딘가. 늦는단 말인가. 기본  
 형은 「더되다」임. [類合下 57] 「더될다  
 (遲)」. [楞嚴四 100] 「더되며 쌩론 功  
 이」.

5598 註釋 도횡도=桃杏도. 복사꽃  
 살구꽃도/업손=없는. 「없다」→5653  
 註釋/짜희=땅에. 곳에. 「짜희」. [類合  
 上 1] 「石千 : 1」 「짜 디(地)」. [釋譜 六  
 34] 「虛空애 짜히 드의야」/흐물며=하  
 물며. →5692 註釋/미해려냐=매화가  
 있겠느냐. 「미화+이더냐」의 구조. 「~  
 러냐」는 “ | ” 모음 아래서 ㄷ>ㄹ의 변화형  
 임. [駱賓王 : 詩] 「鸚鵡杯中浮竹葉 凤凰

琴裏落梅花」/고원춘식=故園春色. 고향  
 집 뜰의 봄빛. [謝眺 : 和徐都曹] 「宛洛  
 佳遨遊 春色滿皇州 結軒青郊路 回瞰蒼  
 江流 日華川上動 風光草際浮 桃李成蹊  
 徑 柔榆蔭道周 東都已倣載 言歸望綠疇」.

5599 註釋 두고=두고서. 「두다」→  
 5589 註釋/慾心=탐욕스런 마음/거지  
 읍다=끌이없다. 한이없다. 기본형은 「그  
 지 업다」임. [圓諺序 46] 「천량 보비  
 그지 업더니」. [月譜十 24] 「그지 업슨  
 諸佛人道라 흐니」/느난=나는. 「내」→  
 5720 註釋/세고을=세간살이를. 살림  
 살이/살펴보니=살펴보니. 「슬피+어+  
 보니」의 구조임. 「슬피다」→5723 註釋/  
 우쉽다=우습다. 「우쉽다·우웁다」로  
 쓰였음. [新語九 21] 「우소운 일이 옵도  
 쇠」. [時調 3984, 孝宗] 「괴 무어 우웁  
 판듸」/ 낙씨더=낙식대. 「낮대」→5659  
 註釋/흐느=하나. 「흐나하」→5723 註  
 釋/외예=외에. 밖에/것칠=거칠. 거리  
 깊 것이. 기본형은 「거리끼다」임. [六祖  
 上 41] 「거리껴 그름 업스니」. [杜初  
 七 3] 「모순매 거리껴시니」/전혀=전  
 혀. 「전혀·전혀」로 같이 쓰였음. [三綱  
 強烈 2] 「전혀 괴이 모로(專愛)」. [永嘉上  
 62] 「괴외호매 전혀 向흐야(一向冥寂)」  
 /읍세라=없도다. 「없+예라」의 구조임.  
 「없다」→5663 註釋. 「~예라」→5654

## 5601

摩天嶺 노픈 재예 가시는 벗님내야  
 어대를 가노라 匹馬를 뵈왓난다  
 塞外에 아득한 胡塵을 다 스로려 가노라.

[作素] 朴就文  
 [字 汝章, 號 晚晦堂]  
 [出典] 赴北日記

## 5602

미해야 나와 너와 혼 터 네자 원이러니  
 나는 너를 떠나 이 곳의 와 잊는터  
 년년의 날 초자 나르니 김흔 경을 늦기노라.

[作素] 尹陽來  
 [字 季亨, 號晦窩]  
 [出典] 甲棘漫詠·7

## 註釋.

5600 **註釋** 두렷호=동근. 기본형은 「두렷하다」임. [類合 下 51] 「두렷흘단(團)」, [救簡 一 1] 「두렷고 흰(團白)」, 불근=밝은. 기본형은 「붉다」임. [訓蒙 下 1] 「불줄명(明)」, [杜初 廿一 39] 「둘 붉거늘 내 괴외호야」/둘이=달이. 「둘」→5706 註釋/턴디의=하늘과 땅에. [事物紀原] 「清輕者上爲天 濁重者下爲地 沖和氣者爲人 循之不得名曰易一變而爲七 七變而爲九 九復爲一 一者形變之始也 清輕重濁 清以陽發 故氣冲爲天 濁以陰凝 故氣沈爲地 天地形別 謂之兩儀 列子曰 視之不見 聽之不聞 周易繫辭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高氏小史曰 兩儀分 五連通 二體分形 離爲清濁 三五曆紀曰 天地渾混如雞子 盤古生其中 萬八千歲 天地開闢 陽清爲天 陰濁爲地 盤古在其中 一日九變 神於天 聖於地 天日高一丈 地日深一丈 盤古日長一丈 如此

萬八千歲 天極高 地極深 盤古極長 後乃有三皇此 天地人之始也」/「**Ճ** 헛야=가득하여. 「가득하다」→5739 註釋/낫이=낫이. 「낫」, [訓蒙 上 1] 「낫 뜰(畫)」, [月千: 11] 「밤과 낫과 法을 나르시니」/어두운=어두운. 기본형은 「어둡다」. [六祖 上 6] 「燈 업스면 어둡느니」, [龍歌: 30] 「알피는 어드본 길해」/업섯는듸=없었는데. 「없+엇+는듸」의 구조 「없다」→5653 註釋. 어디서=어디에서. →5656 註釋 / 떠가는=떠가는. 「쓰다」→5656 註釋. 「가다」→5694 註釋/구름은=구름은. 「구름」→5605 註釋/가리오려=가리우려. 가리려고. 기본형은 「**Ճ**리다」로 「**Ճ**리+오+려」의 구조임. [類合 下 31] 「가릴폐(蔽)」, [杜初 廿二 30] 「沙漠애 **Ճ**겠느니」.

5601 **註釋** 摩天嶺=함경남도 端川과 북도의 城津 사이에 있는 채. 伊板嶺. [新增 卷四十九 端川] 「在郡東六十六里

### 5603

白鷗이 놀나니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라

**〔作家〕** 朴 漑

聖上이 브리셔늘 갈 더 업서 예 왓노라

**(字)** 大均, 號 烟波處士

一身이 閑暇한 情이야 너오 나오 다르랴.

**〔出典〕** 先 稿

\* 題 目 : 白鷗歌(2-2)

### 5604

빅옥 난간 둘년난터 오식 선화 피여셔라

**〔作家〕** 尹 陽 來

넷 신하 모다 되셔 일당어슈 즐기더고

**(字)** 季亨, 號 晦窩

미일의 이런 쏨 끊으시면 밤낮 자려 흐노라.

**〔出典〕** 甲棘漫詠·9

舊號伊板嶺 女真人謂牛爲伊板 俗傳昔  
有人賣犢於上下 其母牛尋犢踰嶺 生主跡  
之而至因爲路 故名伊板嶺」 / 노픈=높  
은. 「높다」→5723 註釋/재예=재에.  
고개에. [訓蒙 上 3] 「재 령(嶺)」. [三  
譯 九 5] 「뫼 험한 재를 넘어」/가시는  
=가시는. 「가+시+는」의 구조를 「시」  
는 존칭선어말어미임. [釋譜 十一 13]  
「合掌해」 禮數해시거늘」. [楞嚴 一  
38] 「양녀 瘋 득초시고」/벗님내야=친  
구들아. 「벗님+네+야」의 구조임. 「벗  
님」은 「벗」을 정겹게 이르는 말임. 「벗」  
→5669 註釋. 「~네」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일컫는 말에 붙어서, 그들로 구  
성된 한 무리임을 나타냄. 「남정네」.  
「~야」는 받침이 없는 말에 붙는 호격조사  
임/어대를=어디를. 「어디서」→5656  
註釋/匹馬를=한 편의 말을. 匹馬單騎/  
뵈왔는다=채촉해(달리느냐). 기본형은  
「뵈아다」로 「뵈아+오+앗+는다」의 구  
조임. [石千: 40] 「뵈알최(催)」. [杜初

十八 8] 「서르 뵈알가(相催)」/塞外예=  
변방에/아득간=아득한. 기본형은 「아득  
하다」임. [石千: 28] 「아득흘명(冥)」.  
[翻小 八13] 「내 몸 짐작해 보만 아득  
해니」/胡塵을=오랑캐로 인해 일어난  
난리/스로려=쓸어버리려고. 기본형은  
「쓸다」로 「쓸+오+려」의 구조임. [類合  
下 8] 「쓸 소(掃)」. [月千: 55] 「煩惱  
쁘러 부로려 해시니」.

5602 **〔註釋〕** 혼 더=함께. 한 곳에.  
「더」는 「드+의」의 구조로 「드」는 원시  
추상명사임. [楞嚴 一 23] 「法이 십기산  
더이쇼물 證흘 쓰르미라」. [龍歌: 62]  
「도즈기 겨신 딸 무려」/네자=가자. 있  
자고. 기본형은 「네다·녀다·니다」 등  
이 같이 쓰였음. [倭語 上 29] 「넬 행  
(行)」. [杜初 七 6] 「녀다 아니 흐느다」.  
[月千: 131] 「目建 나거늘」/원이러니  
=원하더니. 기본형은 「원해다」로 「원+  
이+더니」의 구조임. [類合 下 13] [石  
千: 38] 「원흘원(願)」. [杜初 上 60] 「오

5605

碧城山 나는 구름 자기봉 비가 되야  
 錦江水 흘르난 물에 一葉船 씩워 놋코 月宮  
 香娥 벗을 삼고 清風에 누어스니  
 아마도 人間 淸福을 나 혼자 누루는가.

[出典] 金聲玉振 · 136

직 위두로 봐시과여 원호노이다」/여나 =여나서. 혜어져서. 「여나다」→5638 註釋/와=와서. 「오다」→5682 註釋/잇 난더=있는데. 「잇다」→5673 註釋/년 년의=年年의. 해마다. 「회」→5689 註釋/초자=찾아. 「찾다」→5696 註釋/니 르니=이르니. 기본형은 「나를다·나르다·이르다」 등이 같이 쓰였음. [杜初 十六 42] 「北녁 지비 니르メント도아(到北堂)」. [月釋 十八 4] 「우흐로 梵世에 니르샤문」. [警民: 37] 「훈번 송명에 이르매(一到訟庭)」/김흔=깊은. 「깊다」→ 註釋/늦기노라=느끼노라. 느끼겠구나. 기본형은 「늦기다·늦기다」가 같이 쓰였음. [癸丑 P.109] 「늦겨 仄장 설위」. [石千: 24] 「늦길감(感)」.

5603 **[註釋]** 白鷗=갈매기야/놀라디 =놀라지를. 기본형은 「놀라다·놀나다」로 쓰였음. [石千: 7] 「놀랄경(驚)」. [五倫 二 12] 「놀나 봇들고」/마라=말 거라. 「말다」→5720 註釋/잡을=잡을 「잡다」→5664 註釋/聖上=군주. → 5580 註釋/벼리셔늘=벼리시거늘. 「벼리+시+거늘」의 구조. 「벼리다」→ 5595 註釋 「~어늘」은 「~거늘」의 「丨」 모음아래 “ㄱ” 탈락형태임. [月釋 二 25]

「두어번 브르거늘 블여러늘」. [龍歌: 20] 「그르매 빼 업거늘 얼우시고 쏘 노 기시니」/갈 더=갈 곳이. 「가다」→5694 註釋. 「더」→5602 註釋 / 예 = 여기에. [南明 上 36] 「後에 예와 어두리라」. [釋譜 十九 18] 「비록 예 이서도」/一身 이=자기 한 몸이. [史記: 魯仲連傳] 「衆人不知 則爲一身」/閑暇한 =한가한. 기본형은 「한가하다」임. [小諺 二 62] 「져근 면 한가하여든」. [朴重 中 43] 「져기 한가함을 어드리오」/네오 내오=너이고 나이고. 너나 나나. [時調 120, 李澤] 「두어라 一般飛鳥니 네오 제오 다르랴」/다라랴=다르겠느냐. 기본형은 「다르다」로 「다르+랴」의 구조임. [類合 上 14] 「다률이(異)」. [龍歌: 26] 「後△ 날 다르리잇가」. 「~랴」는 동사의 어간에 붙어, 자기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임. [小諺 三 5] 「비록 모울하니 든니랴」. [朴重 上 15] 「더혀 린드디 못 헤랴」.

5604 **[註釋]** 백옥 난간=백옥으로 만든 난간. 「난간」→5731 註釋/둘년논더 =둘렀는데. 기본형은 「두르다」로 「둘+엇+논더」의 구조임. [月釋 二 32] 「圍

5606

蓬萊山 남은 興을 太乙船의 시러시니  
 四仙 前遊가 오늘과 어렷던고  
 清湖의 雙雙白鷗 네나 알가 흐노라.

作家 友 松

出典 東遊錄·3

\*題目：三日浦

漢譯歌：瑤峯六六擁湖邊 鏡裏沿洄太乙船 三日清遊半日繼  
 四仙佳興一仙專 丹書石面神雲護 碑閣波心彩翼翻  
 若遇水郎同遠舉 仙區從此亦蹄筌.

는 두를 씨오」。〔月釋 十 10〕「眞珠 그  
 를 두르고」/오식 선화=五色 旋花. 오색  
 의 매꽃. 独腸草。〔杜初 上 26〕「오식  
 므든 실로 麒麟을 슈질하고」。〔柳物 三  
 草〕「옛꽃(旋花)」。〔書經：禹貢篇〕「徐  
 用 工貢惟土旋花」。〔禮記：樂記篇〕「旋  
 花成文而不亂」。〔淮南子〕「色之敵不過  
 五 而旋花之變不可勝觀」。〔老子：第  
 十二章〕。「旋花令人目盲」/피여서라=피었  
 구나。「피+엇+여라」의 구조임。「피다」  
 →5670 註釋。「~여라」→5654 註釋/  
 넛=옛날의。「네」。〔類合 上 7〕〔訓蒙  
 下 2〕「네 고(古)」。〔月釋 一 14〕「네  
 업던 이리로다」/신하=臣下. 신하가。  
 〔訓蒙 中 1〕〔類合 上 17〕〔石千 : 6〕  
 「신하신(臣)」。〔小諺 六 25〕「晋에 신하  
 되디 아닌 줄을(不臣)」/모다=모두. 다。  
 〔月千 : 20〕「九龍이 모다 싫기수불니」。  
 〔釋譜 六 26〕「우리 모다 짓조를 겟고아」  
 /뫼셔=모셔서. 기본형은 「뫼시다· 모  
 시다」가 같이 쓰였음。〔石千 : 22 · 25〕  
 「뫼실시(侍)」。〔新語 一 8〕「모시기란  
 흐오리」/일당어슈=一党魚水. 한 무리

의 임금과 백성들이 치밀하게 지냄. 魚  
 水之親。〔列女傳〕「桓公出 寡戚槃牛角而  
 商歌 桓公異之 使管仲迎之 寡戚稱曰 浩  
 浩乎白水 管仲不知 所謂 不朝五日而有  
 豪色 其妾婧進曰 敢問國家之事耶 君之  
 謂也 管仲曰 公使我迎寡戚 寡戚曰 浩浩  
 乎白水 吾不知其所謂 是故豪之 其妾笑  
 曰 人也語君矣 君不知識矣 古有白水之  
 詩 詩不云乎 浩浩白水 儵儻之魚 君來召  
 我 我將安居 國家未定 從我焉如此 寡戚  
 之欲得仕國家也」。〔三國蜀志：諸葛亮傳〕  
 「先主與諸葛亮計事善之 情好日密 關羽  
 張飛等不悅 先主曰 孤之有孔明 猶魚之  
 有水 願勿復言」。〔貞觀政要〕「君臣相遇  
 有同魚水 則海內可安」。〔杜甫：詩〕「稍  
 令社稷安 自契魚水親」/줄기더고=줄기  
 더구나。「줄기다」→5649 註釋/미일의  
 =매일 매일。〔續三 孝 6〕「미일 아침  
 나좌」。〔小諺 六 26〕「미일 아침이 머리  
 비서」/쉼=꿈을. →5639 註釋/쉼작시면  
 =꾼다고 하면. 기본형은 「꾸다」로 「꾸  
 +근작시면」의 구조임。「꾸다」。〔月千 :  
 67〕「쉼을 꾸다」。〔月釋 一 17〕「꾸물

## 5607

毘盧峯 上上頂의 후루룩 르라올라  
 流霞 一盃의 彩雲의 누어시니  
 아마도 世外眞仙은 나 쁜인가 흐노라.

作家 友 松

出典 東遊錄·2

\* 题 目 : 登毘盧峯

漢譯歌 : 天畔瓊岑駕鶴登 冷風八月素襟冰 眼通瑤海三千里  
 身在璇霄九萬層 頭上星辰如可摘 望中銀闕幾時昇  
 凌雲頓覺非人界 不有仙緣到未能.

## 5608

사르미 인성이 의위옛 써시르쇠  
 천녀늘 살가 빅녀늘 살가  
 살오나 죄 살 인성이 노니다가 죽새.

出典 釋譜詳節

第20卷 末尾

쑤우니」、「~근자시면」→註釋.

5605 **註釋** 碧城山=山名. 소재미상/나는=나는. 기본형은 「늘다」임. [訓蒙下 3] [類合上 13] 「늘 비(飛)」. [龍歌: 1] 「海東六龍이 는라샤」/구름=구름. 「구름·구름·구름」등이 같이 쓰였음. [譯補: 2] 「魚鱗 又흔 구름」. [訓蒙上 2] [類合上 4] 「구름운(雲)」/자기봉=산봉우리명. 소재 미상/錦江水=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흘러 黃海로 드는 강 /흘르난 = 흐르는. 기본형은 「흐르다·흐르다」가 같이 쓰였음. [石千: 12] 「흐롤류(流)」. [杜重 - 15] 「(rectify) 느려 空席에 흐르느다」. [法華 六 86] 「根源 홀루미 머르샤물」/一葉船=작은 배. 一葉片舟/썩워=썩워. 「푀다」→5628

註釋/矢코=놓고. 기본형은 「놓다」임. [月千: 42] 「고줄 노호시며 白疊을 노호사」. [釋譜 九 22] 「便安히 노沓고」/月宮 香娥=달 속의 궁전(廣寒殿)에 사는 姫娥(嫦娥). [劉禹錫: 懷妓詩] 「青鳥去時雲路斷 姫娥歸處月宮深」. [後漢書: 天文志注]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姬娥竊之以奔月」/벗을=벗을. 「벗」→5669 註釋/누어스니=누웠으니. 「누+엇+으니」의 구조임. 「눕다」→5638 註釋/清福=좋은 복락. [耶律楚材: 彈琴詩] 「秋思盡雅興 三樂歌清福」. [許有孚: 蔬圃詩] 「庸人皆被富貴薰 或羨吾鑿是清福」/누루는가=누리는가. 기본형은 「누리다」임. [月釋 七 63] 「여러가지 快樂을 누릴씨」. [龍歌: 110] 「太平을 누

## 5609

師門에 分党後로 格言인들 公議되며  
 科場에 末流弊는 異端이나 다를소나  
 後生이 志于學한들 눈을 조초 드르요.

**作家** 趙 槐  
 (字 重華, 號 三竹)  
**出典** 三竹異本·88  
 三竹詞流·49

\* 題 目 : 箕裘謠(40-39)

漢譯歌 : 黨論縱橫世道衰 科場埋沒士趨畢 後生  
 縱有摺衣願 環顧寥寥可學師. 〈三竹 49〉  
 後生已痼各吾師 最是傷心武藝規 縱有  
 聰明兼好學 憐渠無處見而知. 〈三竹異本 88〉

리쉽 제」.

5606 **註釋** 蓬萊山=여름철의 「금강산」을 이르는 말. 三神山. 蓬萊·方丈·瀛洲의 三山. 神仙이 살고 있다는 산. [史記 : 泰始皇紀] 「海中有三神山 名曰 蓬萊 方丈 瀛洲 僊人居之」. [史記 : 封禪書] 「自威宣燕昭 使人入海求蓬萊 方丈 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 患且到則船風引而去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 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闈 未至望之如雲及到 三神山反居水下 臨之風輒引去終莫能至云」/ 太乙船=船名. 太乙=太一·泰一 / 시러시니=실었으니. 「싣다」→5635 註釋/ 四仙 前遊=나보다 먼저 금강산에 와서 놀던 신라 때의 국선, 永郎 達郎 安詳 南石行의 일. 강원도 고성군 三日浦에 이들이 놀던 四仙亭이 있었다 함. [新增 : 卷四十五 高城 ; 山川] 「三日浦 昔四仙遊此而三日不返 故得是名 水南又有小峯峯上有不龕 峯之北崖石面 有丹書六字曰永郎徒南石行 小島古無亭 存撫使朴公構

之於其上 卽四仙亭也」/어찌던고=어찌하였던가. 기본형은 「엇더흐다」로 「엇더흐+더+ㄴ고」의 구조임. [內初 一 20] 「法이 엇던고 ھ야」 [月干 : 144] 「어스ی 아돌 離別이 엇던고」 「~더」→ 5717 註釋/清湖=맑은 永郎湖. 강원 속초와 고성 사이에 있는 호수. [新增 卷四十五 : 杆城 : 山川] 「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 汀回渚曲 巍石奇怪 湖東小峰 半入湖心 有古亭基 是永郎仙徒遊賞之地」/네나=너나. 「네」→5667 註釋.

5607 **註釋** 毘盧峯=內金剛에 딸린 금강산 주위 최고봉. [新增 卷四十七 : 淮陽] 「卽金剛山 主峰 有巖紋 又因風霧斑駁 疑如雪色 山名皆骨者以此」 / ㄹ라올라=날아올라가서. 기본형은 「놀다+오르다」의 복합어임. 「놀다」→5605 註釋. 「올르다」→5624 註釋/流霞 一盃의 =流霞酒(신선주) 한 잔에. 하늘의 선인들이 먹는다는 술 한 잔. [抱朴子] 「石曼卿言到天上 仙人但以流霞酒 與我飲之輒不飢渴」/彩雲의 =아름다운 구름/누어

## 5610

山鑪에 술을 더여 눈으로 安酒 삼아  
 東窓 불근 둘의 님과 둘히 먹는 뜻을  
 白鷗야 헌사 말고려 世上 알가 ほ노라.

作家 朴 漑

(字 大均, 號 烟波處士)

出典 先 稿

\* 題 目 : 白鷗歌(2-1)

## 5611

山林의 늘근 몸이 詩酒에 病이 되니  
 안자면 盡을 쳇고 醉하면 붓을 잡니  
 이 밋기 너나믄人事는 全未全未 ほ노라.

作家 張復謙

(字 益哉, 號 玉鏡軒)

出典 玉鏡軒遺稿

\* 題 目 : 孤山別曲(10-2)

시니=누웠으니. 「눕다」→5638 註釋/  
 世外眞仙은=속세를 떠난 참 신선은/뿐  
 인가=뿐인가. 「푼」→5695 註釋.

5608 **註釋** 사르미=사람의. 「사롭 +  
 익」의 구조. [訓蒙 下 2] 「사롭신(人)」.  
 [釋譜 六 5] 「사르미 무례 사니고도」/인  
 싱이=사는 일이. 삶이. [杜甫 : 曲江]  
 「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 酒債  
 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 穿花蛱蝶深  
 深見 點水蜻蜓款款飛 傳語風光共流轉  
 暫時相賞莫相違」/의위옛=意外의. 뜻밖  
 의/써시로쇠=일이로구나. 「것+이+로  
 쇠」의 구조임. [釋譜 六 31] 「호 것도  
 업시」[石千 : 17] 「것 를(物)」. 「~로  
 쇠」→5593 註釋/천녀늘=천년을. 오랜  
 세월을/살가=살겠는가. 「살다」→5742  
 註釋/백녀늘=백년을. 사람의 일생을 이  
 름. [杜甫 : 詩] 「百年地僻柴門迥」(注)

「邵害云 百年猶言一生」/쏘=또. 다시  
 「도·또·쏘·또」 등이 다양하게 쓰였  
 음. [類合 上 14] 「도 역(亦)」. [倭語  
 上 27] 「또 우(又)」[龍歌 : 9] 「四夷  
 쏘 모드니」/노니다가=놀다가. 「놀다 +  
 납니다」의 복합어. 「놀다」→5658 註釋.  
 「니다」→5602 註釋/죽새=죽새. 죽자  
 꾸나. 기본형은 「죽다」로 「죽+새」의 구  
 조임. 「~세(새)」는 청유령종결어미.  
 [松江 一 23] 「호 盛 먹새근여 쏘 호 盛  
 먹새근여」. [時調 4168, 金光煜] 「崔行  
 首 쑥다람 旱식」.

5609 **註釋** 師門=스승의 門下/分党  
 =당파를 따로 나누어 가름/格言인들=  
 교훈의 말씀인들. 法言. [論語 : 比考識]  
 「格言成法亦可以次序也」. [三國魏志 : 崔  
 琰傳] 「蓋聞盤于游田 書之所戒 魯隱觀  
 魚 春秋譏之格言 此周孔之格言 二經之

## 5612

山林에 드린 지 오러니 世上事를 모르노르  
 十丈 紅塵이 을모는 그련는고  
 物外에 뛰여는 몸이 報恩이 어렵서르.

\* 題 目 : 山民六歌(第五節)

作家 李弘有

(字 順吉, 號 山民)

出典 週軒公遺事

明義. [孔子家語 : 五儀篇] 「口不吐訓  
 格之言」/公議되며 = 공평한 논의가 되  
 며. [漢書 : 匡衡傳] 「聖人慎防異端 禁於  
 未然 不以私恩害公議」/科場에 末流弊 =  
 과장에서 일어나는 말기적인 폐해. [呂氏  
 童蒙訓] 「李君行先生名潛 慶州人 入京師  
 至泗州留止 其子弟請先行 君行問其故曰  
 科場近 欲先至京師貫開封戶籍取應」. 「末  
 流之弊」. 잘해 내려오던 것들이 끝판에  
 서 생기는 폐단/異端이나=전통이나 권  
 유에 반항하는 說. 옳지 아니한 道. 孔孟  
 의 학설에 대한 楊墨의 학설. [論語 : 爲  
 政] 「改乎異端 斯害也已」/다를소냐=다  
 르겠느냐. 「다르다」→5603 註釋/後生  
 이=후학들이. 後生可畏. 후진들이 선배  
 들보다 나아질 가능이 많기 때문에. 나  
 중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  
 [論語 : 子罕篇]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  
 者之不如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欺亦不  
 足昆也已」/志于學현들=학문에 뜻을 둔  
 다 한들. [論語 : 爲政 第二] 「子曰 吾十  
 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  
 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놀을 조차=누구를 따라. 「뉘」  
 →5669 註釋. 「좇다」→5664 註釋/드  
 르요 = 들으리오. 「들+으+리오」의 구

조임. 「듣다」→5720 註釋.

5610 註釋 山鐘에 = 화로불에. 노구  
 솔. [俗談] 「노굿전에 옛을 불였나」/술  
 을=술을. 「술」→5623 註釋/더여=데  
 워. 기본형은 「데오다 · 데우다 · 데이다」  
 로 「데우+어」의 구조임. [松江 二 6]  
 「쓴느를 데온 물이 고기도끈 마시 이세」.  
 [老乞 上 56] 「화로에 데워 오라」. 「더  
 여」는 「데우다」의 부사형으로 同音省略  
 形임/눈으로=(서로) 눈을 마주보며.  
 「눈」→5587 註釋/安酒=안주. 「안주」  
 →5589 註釋/불근=밝은. 「붉다」→  
 5600 註釋/돌의=달빛 아래서 「돌」→  
 5700 註釋/님과=임파. 「님」→5656  
 註釋/둘히=두 사람이. 「둘히」→5728  
 註釋/먹는 뜻을=마시는 뜻을. 「먹다」→  
 5664 註釋. 「뜯」→5643 註釋/현사 말  
 고져=떠들썩하게 하지 말구려. 기본형  
 은 「현스 희다」임. [松江 一 3] 「현스토  
 힌스 흘사」. [譯註 上 28] 「이리 더리 힌  
 사호다」. 「말+고려」. 「말다」→5720 註  
 釋. 「~고려」는 「~구려 · ~구료」로 청  
 유 · 명령형종결어미임. [松江 二 9] 「날  
 나가다 흐고려」. [釋譜 六 13] 「아기 위  
 흐야 어더 보고려」/알가=알까. 알게 될  
 까 봐. 기본형은 「알다」임. [類合 上 1]

## 5613

山<sup>으</sup> 너는 어이 한갈갓치 노프시며  
 물<sup>으</sup> 너는 웃지 날날리 흐르느냐  
 此間에 仁智<sup>한</sup>君子는 못니 즐겨 흐노니르.

[作家] 李淨

〔字 太瀨, 號 楓溪〕

[出典] 刻溪遺事

\* 题 目 : 楓溪六歌(第五節)

## 5614

山아 首陽山아 伯夷叔齊 어더 가니  
 魄骨이 墓土 | 되어 넷 님君 볼아가네  
 갈 제는 오마트니 가고 아니 돌아오네.

[出典] 解我愁·239

「알 디(知)」. [新語 — 10] 「자네 네도  
아옵소」.

5611 [註釋] 山林의 = 자연에서. →  
 5612 註釋/늘근 = 늙은. 「늙다」→註釋/  
 病이 = 병이. 「병」→5731 註釋/안자면  
 = 앉으면. 「앉다」→5656 註釋/蓋을 =  
 술잔을. 「잔」→5739 註釋/붓을 = 붓을.  
 「붓」→5589 註釋/잡닉 = 잡내. 「잡다」  
 →5664 註釋/밖기 = 밖에. 외에. 「밖」→  
 5682 註釋/녀나문 = 다른. 「녀나문 ·녀  
 나문」이 같이 쓰였음. [救簡 — 28] 「녀  
 나문 약으로」. [杜初 上 34] 「녀나문 사  
 라문(別人)」/全未全未 = 전혀 알지 못함.  
 온전히 간여하지 않음.

5612 [註釋] 山林에 = 자연에. 江湖에.  
 山林之士. 산속에 은거하는 선비. [漢  
 書: 王吉傳贊] 「山林之士 往而不能反  
 朝廷之士 而不能出 二者各有所短」/드련  
 지 = 들어온 지가. 「들다」→5716 註釋/  
 오리니 = 오래되었으니. 기본형은 「오라

다」임. [類合 下 59] 「오랄구(久)」. [法  
 華 — 162] 「오라거사 나르시느니」/世  
 事를 = 세속의 일을. [列子: 周稷王篇]  
 「心營世事 慮鍾家業」/모르노록 = 모르노  
 라. 「모르다」→5649 註釋/十丈 紅塵 =  
 열 길이나 되는 세속의 따끌. [金益齡:  
 奉和玉洞崔大雅大唱韻] 「眼少千鍾祿 身  
 超十丈塵 林泉無隱者 城市有斯人 玉洞  
 烟花古 秋園半栗新」/을마느 = 얼마나.  
 「언마」→5717 註釋/그련는고 = 가엾는  
 가. 기본형은 「그리다」로 「그리 + 엇 + 는  
 고」의 구조임. [類合 下 31] 「그릴폐  
 (蔽)」. [杜初 升二 30] 「沙漠에 가に戸느  
 니」/物外예 = 世事 밖에. [莊子: 秋水]  
 「若物之外 若物之內」. [唐書: 元德秀  
 傳] 「彈琴讀書 陶陶然遺身物外」. [韋  
 莊: 感陽詩] 「李斯不向倉中悟 徐福應物  
 物外遊」/뛰여는 = 뛰어난. 「뛰여나라」.  
 →5588 註釋/몸이 = 몸이. 「몸」→5593  
 註釋/報恩이 = 은혜를 갚을 길이. 「結草

5615

床 우희 冊을 노코 床 아리 신을 뇌여라  
 이부 옥희야 날 보리 그 뉘고 알과르  
 어제 맛춘 므지술 맛 보러 왓느부드.

\* 題 目 : 楓溪六歌(第三節)

[作家] 李 淨

〔字 太灝, 號 楓溪〕

[出典] 楓溪遺事

報恩. 죽어서 혼령이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의 뜻임. 중국 춘추시대 晋의 魏武子의 아들 頗가 서모를 改嫁시켜 殉死하지 않게 한 것에 감사하여, 서모의 아버지의 혼이 풀을 매어 적군을 너머뜨려 과에게 잡히게 하였다는 故事에서 온 말임. [左傳 : 宣公十五年] 「武有妾 武子病謂其子頗曰 我死嫁此妾 病亟又曰 殺爲殉 及死 頗曰 寧從治時命而嫁之 及秦晉之戰 魏頗見老人結草以抗杜回 回蹠面顛 遂獲之 後頗夢老人云 我面所嫁婦人之父也 爾從先人治命余是以報」. [李密 : 陳情表] 「臣生當隕首 死當結草」/어렵셔르 = 어렵구나. 「어렵다」→註釋.

5613 [註釋] 山으 = 산아. 「~아」는 받침 다음에 쓰이는 呼格助詞임. [釋譜 六 46] 「佛子 文殊아 모든 疑心을 드외야」. [杜初 八 45] 「杭州아 一定한 야 越州아」/어이 = 어이. 어찌하여. [朴重 中 41] 「縫字를 어이 쓰는 놈」. [新語 一 10] 「어이 조세 아울고」/한갈갓치 = 한결같이. 기본형은 「흔들 같다」·「흔들은 같다」가 같아 쓰였음. [小諺 五 97] 「이 흔들고 들통 세상 마새(一體世味)」. [法錄 26] 「흔들은 흔면(純一)」/노파시며 = 높아있으며. 「높 + 앗 + 으며」의 구조임. 「높다」→ 5723 註釋/물으 = 물아. 「물」. [龍歌 :

2) 「식미 기픈 드른(源遠之水)」. [解例 : 用字] 「물 為水」 「一>二」의 변화는 圓唇母音化임 / 웃지 = 어찌하여. 「엇데 · 엇디 · 엇께」 등 다양하게 쓰였음. [月釋 序 14] 「何는 엇데라 혼는 마리라」. [石千 : 7 · 25] 「엇디괴(豈)」 · 「엇디하(何)」/날날리 = 날마다. 매일같이. 부사형태는 「나날」임. [杜初 八 8] 「나날 서로 다 오낫다」. [翻小 八 6] 「나날 어디려 가고, /흐르느냐 = 흐르느냐. 「흐르 +으+느냐」의 구조임. 「흐르다」→ 5605 註釋. 「~느냐」는 의문형종결어미임. [野雲 : 82] 「보디 아니 흐느냐」. [小諺 六 7] 「보디 몯한엇눈이 있느냐 흐니」/此間에 = 山水(자연) 속에서/仁智한 君子는 =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군자는. 仁者樂山 知者樂水. [論語 : 雍也] 「知者樂水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集注] 「仁者安於義理 而厚重不遷 有似於山 故樂山」/못내 = 못내. 「못내 · 못내」 등이 같이 쓰였음. [釋譜 十一 3] 「못내 니를 一切諸佛와」. [松江 一 8] 「天根을 못내 보와」/즐거 = 즐거워. 「즐기다」→ 5649 註釋.

5614 [註釋] 首陽山아 = 중국의 山西省에 있는 산, 백이. 숙재가 이 산에 들어가 숨어 살았음. [辭源] 「在山西永濟

## 5616

신벽 셔리 찬바람의 울고 가난 져 기력야  
 瀟湘洞庭 어디 두고 獨宿空房 잠 든 날을 싸올세라  
 기력야 너 한 말 드려다가 님 계신 터.

[出典] 芳草錄 · 52

## 5617

生涯도 苦楚하고 世味도 淡泊한다  
 흰 술 훈 두 잔의 끈 귀 쑈이로쇠  
 玉鏡軒 平生 行狀이 이 밖과는 업세라.

[作家] 張復詠

[字] 益哉, 號玉鏡軒

[出典] 玉鏡軒遺稿

\* 題 目 : 孤山別曲(10-7)

縣南 卽雷首山 亦曰首山。〔論語〕「伯夷叔齊 餓於首陽之下」/伯夷叔齊=은나라의 제후로 孤竹君의 두 아들임. 周粟을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에서 採薇하다가 굶어 죽음». →5560 註釋/어디=어디에. →5656 註釋/가니=갔느냐. 「~니」는 의문형종결어미. [松江 一 6] 「四仙은 어디 가니」. [月千: 176] 「거 아니 웅보니」/魄骨이 墓土] =뼈가 부서져 흙먼지가 뭉/불아가데=보러가더이다. 「가+데」·「가다」→5694 註釋. 「~데」는 지난 일을 회상할 때 쓰는 종결어미임→5725 註釋/갈 제는=갈 때에는. 「~제」→5724 註釋/오마트니=오마고 하더니. 「오다」→5682 註釋.

5615 [註釋] 床=평상. [石千: 37] 「상상(床)」. [杜初 上 4] 「상 펴라(擺卓兒)」/우희=위에. 「우희」→5639 註釋/冊을=책을. [訓蒙 上 34] 「최 최(冊)」. [翻小 八 38] 「최을 비러다가」/노코=놓고. 「놓다」→5605 註釋/아리=아래서.

「아래」→5658 註釋/신울=신발을. [訓蒙 中 22] [類合 上 3] 「신혜(鞋)」. [杜初 七 21] 「신 신고 거려(步履)」/나여라=내거라. 기본형은 「내다」로 「내+거라」의 구조임. [杜初 七 23] 「서늘호물내는다(生澌瀝)」. [月釋 七 19] 「生死受苦를 씨여 내와라」. 「~거라」→5632 註釋/이보=이봐. 여보. 「이바·이보오」등이 같이 쓰였음. [時調 3293] 「이바楚 사름들아 네 님금이 어듸 가니」. [時調 898, 李陽元] 「이보오 벗님너야 혼들지나 마로되어야」/으희야=아희야. →5685 註釋/보 리=볼 사람이. 기본형은 「보다」로 「볼+이+Zero 主格形」의 구조임. [松江 一 22] 「人心이 늃爻豆야 보도록 새롭거늘」. [譯補: 60] 「보도록 又다(越看越像)」/뉘고=누구인고. 「뉘+인고」의 구조임. 「뉘」→5669 註釋/알과르=알겠도다. 「알+과르」의 구조임. 「알다」→5666 註釋. 「~과르」는 「~파이라·~파라」로 감탄형 종결어미임.

## 5618

夕陽時 다 된 後에 夫子신들 어이 흐리  
 繼往聖 開來學이 雙壁中에 난다르니  
 萬世에 永頤한 功이 賢於堯舜 허시니라.

**作家** 趙 楠  
 [字 重華, 號 三竹)  
**出典** 三竹異本·58  
 三竹詞流·19

\* 題 目 : 箕裘謠(40-9)

漢譯歌 : 聖心怊悵夕陽天 長夜從今萬八年 舒發

一團光大氣 替爲日月照齊烟. 〈三竹異本 58〉

聖心怊悵夕陽天 長夜從今萬八年 舒發

一團光明氣 替爲日月照齊烟. 〈三竹 19〉

## 5619

世上의 브린 몸이 희울 이리 전혀 읍서  
 一張 玄琴을 自然이 훑지 튼니  
 아모도 子期 쥬근 후에 지음호 리 읍서 흐노르. **出典** 遷軒公遺事

**作家** 李弘有  
 [字 順吉, 號山民)

\* 題 目 : 山民六歌(第三節)

{三綱 忠 24} 「붓그려부미 업파라」. [釋  
 譜序 6] 「佛와 法과 僧파라」/어제=어  
 제. 「어제」. [訓蒙 下 2] [類合 上 3]  
 「어제작(昨)」. [杜初 十六 74] 「보미 나  
 던 뜨디 어제 그트니」/맞춘=맞춘. 기본  
 형은 「마초다」임. [譯補: 2] 「째 마초  
 오는 비」. [法華 一 73] 「네 句률 次第  
 다이 마초건댄」/모지술=무디로 만든  
 술. 「무디」는 가래. 鍼子. 「가래」는 호두  
 와 비슷한데 단단하고 두꺼운 內果皮 속  
 에 들어 있음. [譯補: 45] 「무디(皮鍼  
 子)」/「술」→5623 註釋/맛=맛을. →  
 5644 註釋/왓나부드=왔는가 보다. 「오

다」→5682 註釋.

5616 **註釋** 시벽=새벽. 「새벽 · 시  
 벽 · 새벽」등이 같이 쓰였음. [同文 上  
 3] 「새벽(曉頭)」. [新語 六 16] 「새벽  
 出船 할작시면」/서리=서리. 「서리」. [解  
 例: 用字] 「서리 為霜」. [月釋 序 15]  
 「霜은 서리오」/저=저. →5742 註釋/기  
 력야=기려기야. 「그려기 · 기려기」 등  
 으로 쓰였음. [石千: 27] 「그려기안  
 (雁)」. [小諺 二 49] 「제 가져가는 기려  
 기라」/瀟湘洞庭=소상강과 동정호. →  
 5716 註釋/어디=어디에. →5656 註釋  
 /獨宿空房=부부가 서로 별거함. [班婕

5620

昭陽江 고기 잡고 鳳儀山 松茸 쓰니  
 春州 風味를 노업다 못할노다  
 어주버 八十 太太守는 그를 眷戀하느니.

作家 趙裕壽

(字 穀仲, 號 後溪)

出典 後溪詩集

\* 題 目 : 春川小詞(2-2)

好 : 捷素賦) 「慙行客而無言 還空房而掩咽」. [曹丕 : 燕歌行] 「賤妾煢煢守空房 憂來思思不可忘」. [陶嬰 : 黃鵠歌] 「天命早寡兮 獨宿何傷寡婦 念此兮 泣下數行」. [李白 : 鳥夜啼] 「亭棲悵然憶遠人 獨宿空房淚如雨」/씨울세라=깨울까 걱정되누나. 기본형은 「씨오다」로 「씨오+르세라」의 구조임. [杜初 十五 26] 「부르미 수를 씨오느니」. [時調 2124, 黃喜] 「증 든 날을 씨와다」. 「~르세라」는 어간에 불어서 '그렇게 되거나 그러할까' 염려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임. [樂章 : 井邑詞] 「어괴야 즐 더를 드디을세라」. [松江 二 11] 「半矯態하다가 촌 스랑일 흘세라」/님 계신 더=임이 계신 곳에(전하여라). 「더」→5602 註釋.

5617 **[註釋]** 生涯도 苦楚하고=생활도 고통스럽고. 「生涯」→5617 註釋/世味도 泊泊하다=먹는 음식(식생활)도 풍요하지 못하다. [陸游 : 臨安春雨初霽詩] 「世味年來薄似紗 誰令騎馬客京華 小樓 一夜聽春雨 深巷明朝賣杏花 矮紙斜行閑作草 晴窓細乳戲分茶 素衣莫起風塵嘆 猶及清明可到家」/흰 술=막걸리. 탁주. 「하다」→5706 註釋. 「술」→5623 註釋/흔 두 잔의=한 두 잔에. 「흔나하」→5728 註釋. 「둘하」→5728 註釋. 「잔」

→5739 註釋/프론=파란. 기본형은 「프르다」임. [訓蒙 中 29] 「프를청(青)」. [杜初 七 1] 「프른 미흘 디랫도다」/글귀 =글 句. 文章. [太平 一 2] 「그 글귀를 써」. [石千 : 9] 「글 시(詩)」/뿐이로쇠 =뿐이로구나. 「뿐+이도쇠」의 구조임. 「뿐」→5695 註釋. 「~도쇠」→5593 註釋/玉鏡軒=孤山에 있던 전각. [玉鏡軒序] 「主人曰 客知夫水與月乎 水清如玉月明如鏡」/平生 行狀이=한 평생의 이력이. 한 평생의 삶이. 「行狀」→5626 註釋/밖이는=밖에는. 외에는. 「밖」→5682 註釋/엄세라=없도다. 「없+예라」의 구조임. 「~예라」→5654 註釋.

5618 **[註釋]** 夕陽時=해가 질 시간. →

5742 註釋/夫子신들=공자라 한들. 孔夫子. →5654 註釋/어이=어찌. →5613 註釋/繼往聖 開來學=기준 성인의 道通을 잊고, 이를 후학을 위해 열어 전함. [中庸 : 章句序] 「若吾夫子 則雖不得其爲 而繼往聖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者 然當是時 見而知之者 惟顏氏曾氏之傳得其宗」/너다르니=내달으니. 기본형은 「내둔다」임. [釋譜 六 19] 「城門에 내둔라」. [類合 下 50] 「문득 내둔률돌(突)」/萬世에 永頓현=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음. [詩經大雅 : 江漢篇]

5621

昭陽亭 비를 드고 母津江 도라드려  
 谷雲의 藍輿 乞라 春景을 다 보아다  
 져 중아 清平紅葉은 九秋의 가 보리라.

〔作家〕趙裕壽

(字毅仲, 號後溪)

〔出典〕後溪詩集

\* 題 目 : 春川小詞(2-1)

5622

松陰에 옷 베서 걸고 물 소리여 누어시니  
 三伏署 이른 곳시 清涼始 늘 부들소냐  
 두어라 曝陽에 저 農夫는 病 드는 줄 너 아노라.

〔作家〕趙槐

(字重華, 號三竹)

〔出典〕三竹異本·20

三竹詞流·70

\* 題 目 : 酒老園擊壤歌(30-20)

漢譯歌 : 繁陰沿水障烘陽 競日臨流欲坐忘 足弄漣  
 滴山影倒 神凝澌瀝濶聲涼 庚炎不到清間  
 界 午喝應多勢場 獨愛西疇耕耘侶 全身汗  
 雨神爲常. 〈三竹異本 20〉  
 繁陰不漏午暉晴 競日忘形臥水聲 弄影足浸  
 金鏡展 喚醒耳受玉珂鳴 自同列子冷然善 誰  
 識三閭獨也清 巨耐世間名利窟 薫炎如鑠往  
 來情. 〈三竹 70〉

第五章] 「蘭爾圭瓚 稅鬯齒 告子文人 錫  
 山土田 于周受命 自召祖命 虎拜稽首 天  
 子萬年」. [同第六章] 「虎拜稽首 對揚王  
 休 作召公考 天子萬壽 明明天子 令聞不  
 已 矢其文德 治此四國」. [漢書 : 武帝  
 紀] 「行幸綏氏 詔曰 朕親登嵩高 御史乘  
 屬在廟旁 吏卒咸聞呼萬歲者三」 / 賢於堯  
 舜=唐堯와 虞舜보다 어짐. 「堯舜」→  
 5654 註釋.

5619 [註釋] 𩔤린=벼란. 「𩔤리다」→  
 5595 註釋/𧆂을 이리=할 일이. 기본형  
 은 「히다」로 「힣+이+오+ㄹ」의 구조  
 임. 「~이」는 사역선어말어미. [牧修 :  
 10] 「陽氣를 비러 노기며」. [朴初 上  
 56] 「돌 촌 나래 아기 나하던 어미와」.  
 「~오」는 삽입모음임. [杜初 上 15] 「더  
 헤야 링줄이디 몯흘가」. 「일」. [訓蒙 下  
 31] [類合 下 63] 「일 쓰(事)」. [月

## 5623

술을 大醉하고 玉欄干에 지어쓰니  
 寒山寺 찬 바람에 醉한 술이 다 썩였다  
 童子야 酒母 불러라 解酒酒하게.

出典 無名時調集 가본·40

千:2)「世尊へ 일 술보리니」/전혀=전혀。「전혀」→5599 註釋/음셔=없어서。「없다」→5653 註釋/一張 玄琴=거문고。〔李白: 戲贈漂陽〕「素琴本無絃」(注)「陶潛蓄 琴一張 微絃不具 每撫面和之曰 但得琴中趣 何勞絃上聲」/혹지=흘어。「흘다」→5691 註釋/트니=타니。연주하니。「빠다」→5661 註釋/아모도=아마도→5682 註釋/子期=초나라 사람鍾子期。거문고의 명수인데, 伯牙는 그가 죽은 후에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줄 유일한 사람의 죽음을 한탄하고 이후 일체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함。〔呂覽〕「鍾子期死 伯牙琴絕絃 終身不復鼓琴 以爲足爲鼓者」。伯牙鼓琴而六馬仰秣。명인의 음악은 동물을 감동시킴을 이름. 죽근=죽은。「죽다」→5676 註釋/知言호 리=거문고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死言호 리」→5698 註釋。

5620 **註釋** 昭陽江=북한강의 지류로 인제·양구를 흘러 춘천시 북쪽에서 북한강에 합류됨。〔松江續集〕「昭陽江西歸入漢」/고기=물고기。→2704 註釋/잡고=잡고。「잡다」→5664 註釋/鳳儀山=춘천에 있는 명승고적의 하나./松茸=송이버섯。松柏。「茸」는 「耳」의 잘못임./쓰니=따니。기본형은 「빤다·싼다」

가 같아 쓰였음。〔類合 下 46〕「빨 떡(摘)」。〔內=下 69〕「뚱딴는 겨지비니」。〔同父 上 2〕「싼다(摘了)」/春州=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인 「春川」의 옛이름임/風味률=풍취와 맛을。〔陳師通: 詩〕「風味苦麴君」/노업다=전혀 없다고는。기본형 「노여업다」의 잘못。「노여=다시」의 뜻임。〔松江 — 11〕「견줄 더 노여업다」/못흘노다=못하겠구나。「못흐+르노다」의 구조임。「~르로다」→ 5677 註釋/어주벼=아(감탄사)。「어즈벼」→5598 註釋/八十 太太守=80세나 된 큰太守。영조 14년(1792) 아들 參判公(迪命)이 춘천부사로 있을 때, 작자가 清平·谷雲의 승경을 유람한 적이 있음。「太守」는 자기 자신을 이름/眷戀호느냐=사모하고 자꾸 뒤돌아 보느냐。「眷然」。〔潘岳: 詩〕「眷然顛鞏洛 山川邈離異」。〔王羲之帖〕「忠著於上 義行於下 雖古之逸士 亦將眷然」。

5621 **註釋** 昭陽亭=春川에 있는 명승고적의 하나로 「二樂樓」라고도 함。비률=배률。→5635 註釋/트고=타고서。「트다」→5673 註釋/母津江=춘천의 북쪽 42리에 있는데, 淮陽의 德津 金城의 菩提津·狼川의 大利津의 하류에 있음 / 谷雲의 藍輿=谷雲은 남여(가마)를 타고

5624

술을 더꿔하고 완월누의 올너보니

연자빅노던 흑규어흑면져하고 벽천츄월은 반입산반  
패천니라

**[出典]** 歌詞 156

(羅孫文庫本)

셔 건너 어구예 일엽소션 어옹더라 소상팔경이 이  
갓던야.

5625

식흰코 반가을순 두렷호 보름날 둘

**[作家]** 尹陽來

직창의 흘너드니 님의 늄 다시 본 듯

(字 季亨, 號晦窓)

더 돌아 그믐도 불그면 므슴 훈이 이시리.

**[出典]** 甲棘漫詠·10

감. 뚜경이 없는 의자 비슷한 작은 乘橋.  
「남여」. [譯補: 46] 「남여(爬山篋)」.  
〔同文 下 19〕 「승교 남여(爬山篋)」/ㄻ  
라=바꿔. 기본형은 「굴다」로 「굴+아」  
의 구조임. [龍歌: 85] 「나랏 일홈 ㄻ  
시니」. [譯語 上 13] 「벼슬 ㄻ다(替心)」  
/보아다=보다. 구경하다. 「보다」→  
5615 註釋. /清平 紅葉은=청평산의 紅  
은 단풍구경은. 「清平山」은 춘천 동쪽  
44리에 있는데, 「慶雲山」이라고도 함 /  
九秋의 가=가을에나 가서. [晉書: 張協  
傳] 「晞三春之溢露 懇九秋之鳴飄」. [陸  
機: 日出東南隅行] 「丹脣含九秋」. [梁  
元帝纂要] 「秋曰三秋 亦曰九秋」. 「가다」  
→5694 註釋.

**5622 [註釋]** 松陰에=소나무 그늘에/  
옷=옷을. [訓蒙 下 16] [類合 上 30]  
「옷 의(衣)」. [釋譜 六 4] 「鹿皮옷 니브

샤」/벼서=벗어서. 「벗다」→5682 註釋  
/걸고=걸어놓고. 「걸다」→5690 註釋/  
물 소리여=물 소리를 들으면서. 「물」→  
5613 註釋. 「소리」→5704 註釋/누어  
시니=누웠으니. 「눕+엇+으니」의 구  
조임. 「눕다」→5638 註釋/三伏署=삼  
복의 무더위. [史記: 秦紀: 秦德公二  
年] 「初伏(注)六月三伏之節 始自秦德公  
周時無伏(釋名) 伏者金氣伏藏之日也 金  
畏火 故三伏皆庚 四氣代謝 皆以相生至  
立秋 以金代火 故庚日必伏(注) 夏至後  
三庚爲初伏 第四庚爲中伏 立秋後初庚爲  
末伏」/이즌 뜻시=잊은 뜻이. 「낮다」→  
5658 註釋. 「곧」→5584 註釋/부늘소  
냐=부를소냐. 부러워하겠느냐. 「부러워  
다」→5653 註釋/曝陽의=찌는 듯한 더  
위의. 暴炎/農夫는=농부는. 농사짓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漢書: 食貨志]

## 5626

侍山의 웃시 곱다 하기 完山 나부 여기 웃네  
 웃시야 곱다마는 설이 마진 박웃시라  
 아하야 行狀 자리려라 갈 길 뱃비.

[出典] 金聲玉振 · 131

「厲山氏于曰農 能植百穀 後世因名耕者  
 曰農」〔詩經：幽風 七月篇〕「嗟我農夫」/  
 病 드는 줄=병이 드는 것을. 「병」→  
 5731 註釋. 「들다」→5716 註釋/너=  
 내가. 나는. 「내」→5720 註釋/아노라  
 =아노라. 「알다」→5666 註釋.

5623 [註釋] 술을=술을. 고어에서는  
 「수울·수을·술」등이 같이 쓰였음.  
 [杜初 八 28] 「樓 우희서 수을 먹고(樓頭喫酒)」. [月釋 一 43] 「마시 수을 굳  
 더라」. [訓蒙 中 21] [類合 上 29] 「술  
 죄(酒)」/지어쓰니=기대었으니. 의지하  
 였으니. 「지혔으니」의 연철형태. 기본형  
 은 「지혀다·지하다」가 같이 쓰였음.  
 [月釋 八 99] 「그애 지혜 민오」. [小諺  
 二 15] 「几 지혀는 거시라」/寒山寺=중  
 국 강소성에 있는 절 이름/꺼엿다=깨었  
 다. 「꺼+엇+다」의 구조. 기본형은 「꺼  
 다」임. [類合 下 7] 「설 성(醒)」. [杜初  
 十五 9] 「수리 꺼어눌(酒醒)」/酒母=술  
 밀. 술청에서 술을 파는 여자. [俗談]  
 「주모 보면 염소똥 보고 설사한다」/ 불  
 러라=부르거라. 기본형은 「브르다」로  
 「부르+거라」의 구조임. [類合 下 6] 「브  
 률호(呼)」. [金三 二 55] 「쇠라 불러도  
 (呼牛)」. 「~거라」→5685 註釋/解酌酒  
 =解醒酒. 해장술. 「醒」은 술이 아직 깨지  
 않은 것을 이름. [晋書：劉伶傳] 「一飲

一斛 五斗解醒」.

5624 [註釋] 완월누의=琬月樓에. 琨  
 月은 달을 구경하며 즐김의 뜻. 「琬月長  
 醉」/을너보니=오르니. 기본형은 「오르  
 다」. [釋普 十一 13] 「우희 오르락 아래  
 느리락한야」. [類合 下 6] 「오魯등(燈)」  
 /沿渚白鷺或覩魚或眄渚 碧天秋月半入  
 山半掛天=물가의 갈매기들은 고기를  
 엿보기도 하고 혹은 물가를 바라도 보  
 며, 푸른 하늘 가을 달을 반쯤은 산에 들  
 고 반은 하늘에 걸려 있음/어구예=어  
 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出入口. 「어  
 귀+예」의 구조. 「~예」는 “~” 모음 아  
 래의 처소격임. [譯補: 10] 「좁은 어귀  
 (隘口)」. [漢清 263 c] 「アッと길 어귀  
 (岔路口)」/ 어옹더라 = 어옹들아. 漁  
 翁·漁者. 「漁翁夜傍西巖宿」. 당나라 사  
 람의 싫귀. [柳宗元: 漁翁詩] 「漁翁夜傍  
 西巖宿 曉汲清湘燃楚竹 煙消日出不見人  
 故乃一聲山水綠 回看天際下中流 巖上無  
 心雲相逐」/소상관경 =瀟湘八景. 소수와  
 상수가 모이는 곳에 있는 여덟가지의 아  
 름다운 풍경. [夢溪筆談] 「度支員外郎  
 宋迪工畫尤善爲平遠山水 其得意者有平  
 沙落雁 遠浦歸帆 山市晴嵐 江天暮雪 洞  
 庭秋月 瀟湘夜雨 煙寺晚鍾 漁村夕照 謂  
 之八景 好事者多傳之」/이 갓던야=여기  
 와 같더냐. 기본형은 「근하다」. [龍歌 :

6] 「저재 곤호니 (如市).」 [楞嚴 二 25]

「이 곤히(如是).」.

**5625** **[註釋]** 식훤코=시원하고, 기본형은 「식훤하다」임. [同文 上 26] 「모음 식훤하다(快心)」. [類合 下 15] 「식훤쾌(快)」/반가울순=반가운 것은. 「반갑 + 오 + 은 + 순」의 구조임. 「~순」→ 5593 註釋/두렷흔=둥근, 기본형은 「두렬하다」임. [類合 下 51] 「두렬흘단(團)」. [救簡 一 1] 「두렬고 흰(團白)」/보름날 둘=보름달. [分溫 12] 「보름날 밤」 [杜初 上 24] 「八月 보름날 仲秋節에」. 「둘」→ 5706 註釋/직창의=客窓의 旅窓. 客窓寒燈/흘러드니=(달빛이) 흘러드니. 「흐르다+들다」의 복합구조임. 「흐르다」→ 5605 註釋. 「들다」→ 5716 註釋/님의 늦=임의 얼굴을. 「님」→ 5656 註釋. 「矣」. [月釋 八 35] 「菩薩入 늦춘 金色이오」. [類合 上 20] 「늦 안(諺)」/여=저. 「겨」→ 5732 註釋/그 름도=그름 밤에도. 「그름」. [石千: 41] 「그믐회(晦)」. [三綱 孝 21] 「그무 예가 주그리라」/불그면=밝으면. 「밝다」→ 5600 註釋/무슴=무슨. 「무슴」→ 5673 註釋/이시리=있으리. 「잇+으리」

의 구조. 「잇다」→ 5673 註釋.

**5626** **[註釋]** 侍山=山名. 未詳/꽃이=꽃이. 고어에서는 「꽃·꽃·꽃」이 같이 쓰였음. [類合 上 8] [訓蒙 下 4] 「꽃 화(花)」. [月印 一 9] 「묘호 고즈란 푸디 말오」.

[恩重: 9] 「년꽃 곤더니라」/나부=나비가. 「나비·나비·나비」 등이 같이 쓰였음. [訓蒙 上 21] 「나비蝶(蝶)」. [杜初 卍三 20] 「보름매 나비 늦죽하고(低風蝶)」. [物譜: 飛蟲] 「나비(蝶)」/설이=서리를. [解例: 用字] 「서리 為霜」. [月釋 序 15] 「霜은 서리오」/박꽃시라=박꽃이라. 박과에 딸린 한해살이 덩굴풀/行狀=「行裝」의 잘못. 길 떠날 채비. 行具·行李. [墨客揮屏] 「行李 謂行人也今人乃謂行裝爲行李 非也」/차리려라=차리어라. 준비하여라. 기본형은 「출호다」. [同文 上 50] 「일 출호다(辦事)」. [訴語 七 19] 「來日이라도 출흘디니/밧버=바빠」 「밧잇보다·밧부다·밧브다」 등이 같이 쓰였음. [時調 642] 「九万里長天에 무스 일 비잇바서」. [漢清 206 a] 「밧부다(忙)」 [內重 二 35] 「밧븐제 가져오라」.